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8년 3월호

통권 제 17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2월 교우소식

새 교우

♣ 이종철씨(76년생), 종로구 화동 23-9

☎ 017-244-7665(101구역)

박선영씨(80년생), 상계동 미도(아) 103-209

☎ 011-9199-0108(211구역)



♣ 정연호씨(74년생), 종로구 소격동 소격(아) 211호

☎ 010-3133-4472(101구역)



별 세

♡ 정보열 교우(김경엽 집사·유혜순 권사 모친, 89세), 시카고에서 17일(주일) 별세.

결 혼

♣ 송경엽 군(송재욱 장로·계명의 권사 2남), 16일(토) 오후 1시, 전주리베라호텔 1층 백제홀.

♣ 최애리 양(최경일·원명자 집사1녀), 23일(토) 오후 12시 30분, 종로타워 33층 탑클라우드.

♣ 엄유림 양(엄항섭 씨·추혜숙 집사 딸), 3월 1일(토) 오후 3시, 여의도 교원공제회관 15층.

출 산

♠ 송미진·이진호 교우(이무남 교우·김영분 집사 1남), 3일(주일) 득녀.

♠ 이은혜·조광민 교우(조대식·최서섭 집사 1남), 2일(토) 득녀

환 자

♣ 최명애 권사, 일산백병원 605호.

이 사

♣ 최영훈 집사, 강북구 번3동 주공1단지 112-604
☎ 010-7737-3962

축 하

- ♣ 김홍석 집사, 24일(주일) 오후 4시,
화성교회(화곡본동)에서 한국남성합창단 연주회.

감 사

- ♣ 최경일·원명자 집사, 24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출 국

- ◇ 권혜순 집사, 가족방문차 하와이 출국(2.1~2.13)

새시대목회연구원

제161회 새시대목회연구원 강좌가 2월 18일(월) 10시 30분에 있었다. 이번 달 강좌는 지난달에 이어서 고재길 박사가 <본회퍼의 신학과 삶 2>를 강의하였다. 본회퍼의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의 원칙은 “대리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본회퍼가 사회윤리를 실천하는 기본 동인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고재길 박사는 논문을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강의하였다. 본회퍼의 대리행위 사상이 오늘의 기독교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공동체란 가치의 회복, 정의의 형성, 약자들의 고난에 대한 연대적 참여가 중요한 주제들이 된다. 이 세가지는 타자를 위하는 책임 사회와 타자와 함께하는 책임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기본요소들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정의로운 제도들을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구역장 수련회

구역장 수련회는 22일(금)에 강화 연동교회 수양관에서 있었다. 구역장 20명, 권찰 10명, 교구장로 1명, 교구권사 6명, 일반인 2명과 교역자 4명 등 총 43명이 참석하였다. 오전에는 황영태목사

가 구역지도자들을 위하여 특강을 하였는데 구역모임에서 돌탕모임을 하기 위한 욕망을 진행하였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성공회 강화성당과 강화고인돌을 관람하였다.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돌탕모임 욕망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면서 새롭게 시작될 구역예배를 기대해 보았다.



여전도회 헌신예배

2월 17일 오후 3시에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주영 한빛여전도회장의 사회, 이순례 한샘여전도회장의 기도, 유현일 한길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말씀은 예지교회 담임목사인 김은혜목사가 <생명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다.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였고, 특히 남선교회에서도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위하여 찬조로 특송을 하여서 교회 안에서 남녀가 서로 아름답게 교류하는 분위기를 예배속에서 나누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

24일(주일)에는 각 교회학교별로 졸업식이 있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치부 : 김민구 김태우 배하늘 안재훈 김희윤 민지희
정은유 황조이아 이수민 (9명)

아동부 : 신지수 이지원 황민수 이형권 (4명)

중등부 : 이해나 손희승 이지연 최아라 정유진 변경인

고등부 : 강현지 이지현 강수경 김태현 (4명)

청년부 : 김유천 김바울 유혜림 이다미 (4명)

당회원수련회

설 연휴중인 08년 2월 8일(금) 오후 5시부터 2월 9일(토) 오후 1시30분까지 강화도 연동교회 수련관에서 당회수련회를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치고 귀경하였다. 황영태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최창해, 구희숙, 안종혁 부목사님들과 조기현, 추영일, 강명준, 장문자, 임중규, 김영석, 박정음, 윤상구 장로 그리고 이종서 피택장로가 참석하였다.

담임목사 인도의 개회예배와 저녁식사 후 오후 7시부터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다시 모여 우리 안동교회의 앞날과 나갈 방향 등에 대해 각자가 의견을 내고 토의에 들어갔다. 안동교회의 꿈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장차 교회가 나갈 방안과 사명을 얘기 했다. 당회원부터 스스로 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찾아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도심교회로서 정체성을 찾고 발전방향을 잡고, 전통적인 양반교회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도덕적 윤리를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최근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앞서가지 못하며 사회의 질서와 질책을 받는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교회와 성도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황목사님은 주님께서 어떻게 본인을 안동교회로 인도하셨는가를 전해주셨다. 목사와 장로는 동역자로 섬기는 것이 장로교 정신임을 강조하였고, 당회원 간의 신의가 중요함을 일파하셨다. 이어서 황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토의를 종결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니 밤 11시가 되었다. 교회회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니 자정이 다 되었다.

다음날 아침 7시반에 경건회로 모여서 황목사님이 베드로전서 5장 1~11절 말씀을 교독하고 당회원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였다. 아침식사 후 8시반에 다시 모여 교회 발전을 위한 토의를 계속하였다. 오전 11시반이 되어 에베소서 6:5~9 말씀과 기도로 폐회예배를 보고 오찬까지 황목사님 주치로 잘 먹고 은혜 충만하여 귀가길에 올랐다.

안양교도소 방문

2월 4일 오전 8시 45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안

양교도소에 도착하였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 찬송가 426장, 358장, 539장을 부르고, 장문자 장로가 기도하였다. 최창해목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여 은혜를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었는데, 한빛여전도회가 준비한 찰시루떡 반말과 사과와 귤을 사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또한 유명옥집사가 Joe 샌드위치 20개를 제공하여서 함께 나누었다. 이날 참석자는 한빛에서 한인수권사, 황정열집사, 최령자권사와 장문자장로가 동행하였고 교회에 돌아와서 한인수권사가 <사랑채>에서 점심을 제공하여서 방문자들이 모두 즐겁게 식사를 하고 마쳤다.

어린이집 졸업식

21일(목) 오전 11시에 안동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다.



유치부소식

1월 특별행사로 마지막 주(27일) 새주기도문 암송대회가 있었다. 지난 해에는 7세 중에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많아서 상품들이 남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 처음 갖는 행사에 암송에 적극적인 친구들이 다소 적은 가운데 그 중에서 6세 규민이와 기령이 친구가 큰 소리와 함께 완벽한 암송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도전을 주었다. 유치부에서 종종 갖게되는 암송관련행사를 앞으로 가정과의 연계학습으로 학부모들께 잘 인지시키고, 또 반별 대항형식을 동원하여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주기도문을 선생님들과 함께 외우면서 처음에는 헛갈리고 또, 꼭 바꿔 외워야 하는 이유를 다들 몰라 했지만 암송하는 가운데 새주기도문이 군더더기 없이 더 깔끔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는 유치부 예배 가운데 이런 깔끔하고 단순함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는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독거노인 반찬배달

2월 14일 독거노인 반찬은 돼지고기, 버섯, 계란 장조림과 무우 채 무침, 우거지(시래기무침)과 콩 백설기를 하여 배달해 드렸다.

2월 28일은 배추김치를 담갔고, 자반고등어 튀김과 시금치나물, 콩호박떡을 하여 배달해 드렸다.

중보기도팀, 안동전도대 연합 수련회

2008년 중보기도팀과 전도대 수련회를 2월 12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교회 수도원에서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48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회예배는 안중혁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말씀(이사야 1:15-18, 창세기 47:9, 시편 71:14,20)으로 하나가 되어 각자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 자신을 위한 회복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므로 회복시키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만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오후 기도회에는 다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포된 말씀 누가복음 1:26-38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서로 서로 격려하며 1)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2) 교회의 환우들과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3)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위하여 통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충만하게 하심을 참석자 모두가 감사드리며 수련회를 마쳤다.

아동부소식

설 명절을 보내고 두둑해진 주머니를 기뻐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친척들과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세뱃돈에 대해 심일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를 알고 실천하는 아동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소망한다.

이날 예배에서는 사순절 기간으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은 조금만 자제하고 경건하게 부활절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하는 메시지도 전달되었는데 이날 특별히 영화예배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전달됐다. 기차와 다리의 길을 내어주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철로 톱니바퀴에 끼인 아들을 구할 것인가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를 놓고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많은 이들을 구하는 내용의 영화 장면을 보면서 예배장소는 금새 숙연한 분위기가 되었다.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16일(토)에는 봄방학을 맞아 아동부 20명, 유치부 2명, 교사 10명이 태릉 이스턴캐슬 눈썰매장으로 1일 눈썰매겨울캠프를 다녀왔다. 눈발을 구르며 신나게 씩씩 눈썰매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특히 1학년 꼬마들은 눈썰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탔지만 몇 번 타는 동안 자신감이 생겨 나중에는 혼자 타는 용기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한사랑의날

겨울의 끝자락인 지난 2월21일 저녁 한사랑의날 예배를 드렸다.

강춘구집사의 인도와 정성라집사의 기도에 이어, 창세기 28장 16~19절 말씀을 가지고 안중혁 목사님께서 루스의 새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기를 소원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황영태 목사님께서 식사기도를 해주시고, 말언니들이신 한빛여전도회를 비롯하여 한샘, 한길 언니들께서 행사를 도와주시고 정으로 감사안아 주셨다. 찬양연습을 하고 다과를 나누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총회 문화법인 창립

"한국교회의 문화적 자원을 연결하고 대내외적인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문화선교 사역을 전개하는 문화 허브(Hub)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8일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문화법인 창립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광선목사(증경총회장·신일교회)는 "그 동안 교회가 세상에 자신있게 내어놓고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독교문화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인이 설립되면 다양하고 창조적인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보급할 뿐 아니라 문화선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목회적, 선교적 결실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법인은 각종 문화 예술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다 효과적인 문화선교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이목사는 "이를 위해서는 온 교회가 기쁘게 동참해 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목사는 "곧 재단설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문화법인이 한국교회와 세상에 기독교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물론 온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자"고 당부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최우수대학에 선정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김중은) 기독교교육과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2007학년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질적개선을 목적으로 일반대학 교육과 53개 대학 96개 학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5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장신대는 이번 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최우수대학에 선정됐으며, 교육 및 경영활동 등 전반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따라 학과경영,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학생과 교육여건 등 4개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 장신대는 4개 영역에서 모두 최우수 대학으로 인정받아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질적수준과 성과 및 사회적 공신력을 확인하게 됐다.

특히 장신대 기독교교육과의 발전계획 및 교육과정개선이 체계적이고, 우수해 지난 2007년 12월 18일에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2007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태안 '자원봉사' 후속 활동

사순절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사순절 전국교회 태안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봉사단은 1차적으로 3월 말까지는 방제작업 자원봉사를 마치고 2차 사업계획에 돌입할 예정이다.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봉사단의 사업은 피해 어민과 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막대한 재산 손실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태안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 1~2회 피해 후유증에 대한 심리 상담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가정 아동들을 위해서는 따로 방과후 교실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현 법률 전문가들을 '태안주민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국가에 배상을 촉구하고, 생업의 위기에 놓인 피해 어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교계 대규모 행사들도 서해안 살리기에 '울인'한다. 그 출발점이 오는 3월 23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이다. 봉사단은 이날 예배의 주제를 서해안 살리기와 연계하고 봉헌된 헌금은 피해 지역 및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교단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올 여름 각 교회에서 개최될 중·고등부 및 청·장년 수련회도 태안에서 열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교단의 2009년 교회학교 교재에도 태안 환경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자는 안건도 발의중이다.

이외에도 △신학자 초청 국제환경신학포럼 개최 △'서해안 살리기 기독교환경운동백서' 발간 △피해 도서지역 선정 후 생태마을 조성 △생태자료전

시관 및 교육관 상시 운영 △전교인 태안 관광 및 태안 상품 구매 장려 등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회봉사단 기획실장 유영경목사는 "방제작업 이후의 사업은 각 교단의 총무단에게 협조를 구해 3개월, 6개월, 1년 순으로 개교회들과 연계하며 차차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천지'에 정통교회가 흔들린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정통교회에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하고 호시탐탐 포교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 '신천지' 신도의 가족들은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접촉하기도 수월하고, '가족애'로 인해 미혹을 당하기가 쉽다. 심지어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포섭 당하는 사례가 많다.

감리교회 교인 A씨(여)는 고등학생 아들의 신앙관이 변질됐음을 느꼈다. 출석하던 교회를 나가지 않더니, 성경을 왜곡시켜 해석했다. 아들의 가방을 뒤져본 A씨는 '신천지'에서 발간한 교재를 발견하고 아들이 이단에 빠졌음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들을 불러놓고 정통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들은 '신천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 A씨를 끌어들이 '모략'(거짓말)을 세웠다.

'추수꾼'은 A씨의 생일날 우연을 가장해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포섭을 시작했다. 아들은 현관문을 미리 열어놓아 '추수꾼'이 쉽게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추수꾼) "실례합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OO교회(편집자 주-정통교회 사칭) 전도사인데,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오세요."

(A씨) "저는 교회 다닙니다."

(추수꾼) "그러시군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네요. 괜찮으시면 사연을 듣고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수꾼'은 사연을 들어주는 척하며, 오히려 아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짓행동을 했다. A씨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 그러면서 '추수꾼'은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신천지' 강사를 집에 데려와 성경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보자"고 A씨에게 제안하며 포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A씨는 결국 '신천지'의 유혹에 빠졌다. A씨는 그 후 친정 식구

까지 모두 '신천지'로 데려갔다. 이는 '신천지'의 포교법을 분석해 허구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 실제 사례를 재구성 한 것이다. 이른바 '이단 균(菌)'이 전염되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다. '신천지' 탈퇴자 B씨는 "가족이 이단이라고 핍박하면 '신천지'에서 알려달라고 한다"면서 "그 때부터 '신천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족 포교를 시작한다"고 증언했다.

"비전트립 ;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비전트립을 떠나기에 앞서, 위기상황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정세나 위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에 문의하거나 현지 선교단체, 또는 선교사에게 위험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를 통한 교육은 기본이다.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 분석과 문화 공유는 물론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다중 연락망 구축도 필요하다. 건강상태의 사전점검도 필수. 건강 악화로 본인은 물론 일행까지 힘들게 하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현장을 방문했다면,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선교팀에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인물이 있다면, 감시는 첫 전략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이동할 때 두세 번만 급작 행동을 하면 감시 여부를 쉽게 알아차린다"고 조언했다.

안전하게 이동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아프간 사건은 이동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4명 이상의 단체는 2대 이상의 차량에 나눠 이동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랍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보자. 포획되면 일단 순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억류 기간에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계선교협의회 한정국 총무는 "음식 조절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해야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서는 현지 경찰에 의해 취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

면 안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선택해 상세히 설명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질문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대응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현지 환경이나 음식물이 바뀌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즉각 귀국을 선택해야 한다. 세계선교협의회가 정리한 비전트립 지침에 따르면, "현지 방문 전에 필히 의료전달 체계와 보건환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분위기 파악이 충분한 선교사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강도를 만나거나 이와 연관돼 폭행을 당하는 등 돌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침착성을 유지하며 생존의 의지를 갖고 정신적인 투쟁을 벌이라는 것이 선교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교회 대상 요양보험 설명

보건복지부는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회장:김상인)를 통해 오는 2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명회는 국가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는 첫 설명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가 교회에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까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그동안 가족영역에 맡겨졌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교회차원의 관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교회가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급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로서는 시설급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 인

력 확보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교회는 시설만 갖추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며 시설급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회 인적 자원을 활용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나누어진 재가급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는 노인학교연합회는 전국교회에 공문을 보내 "각 교회들이 보건복지부의 교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프로그램 운영과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학교연합회 사무국장 강채은 목사는 "이미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공간과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서 요구되는 시설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참여 방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대출 운동 확산 주력"

본교단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펼쳐온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회장:황태주, 이하 '생명길')이 지난 18일 영천교회(박위근 목사 시무)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하고 한국 교회의 미개척 분야인 소액대출 운동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생명길'은 이날 총회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취지문을 확정하는 한편 임원을 선출하는 등 교회의 소액대출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날 총회에서 총회장 김영대 목사는 축사를 보내 "작은 운동이 빈익 빈 부익부의 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당시 김창인 유의웅 박정식 민병익 황태주 손달익 이규호목사 김옥인 박화진 장로 등이 오이코 크레딧 한국위원회 설립을 위해 1억여 원의 기금을 출연하면서 시작된 '생명길'은 오이코 크레딧 한국위원회 설립 대신 독자적인 소액대출을 통한 사회선교사역을 모색해 왔다. 생명길이 현재 운영하는 소액대출 기금은 약 1억2천만 원 규모. 한국기독교 경제문화문화 운동본부에 비롯해 신대원생 등록금, 미자립 교회 전도사 사택보증금, 간이식당 창업비, 자원재생물류사업 창업비 등으로 소액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종교인 세금납부 문제 세미나 개최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서경석)은 지난 18일 기독교사회책임 세미나실에서 '한국교회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한 5회 연속세미나 중, '종교인 세금납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슬로건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종교인 세금납부 문제를 주제로 발제한 최성규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순복음 인천교회)는 종교인을 위한 소득세 규정과 함께 목회자들의 세금납부에 관한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종교인 세금문제로 목회자들이 세금을 떼어 먹는 비열한 탈세자로 인식될까봐 마음이 아프다"며 "아직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선교·구제·봉사 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최 목사는 목회자 개인의 세금은堂堂하게 납부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교회나 교회 산하기관, 선교기관들의 세금납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이드사무처장(종교법인 법재정추진 시민연대)은 "목회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종교인 세금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목회자들이 좀 더 깨끗한,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에게 반발을 샀고 그 결과로 인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는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서경석 공동대표는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바르고 정확하게 진단, 처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 목사는 "이번 M방송사의 00후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독교가 받는 비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연합기관, 대형교회, 이명박 정부, 북한인권 관련 문제 등을 연계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은 자 후원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작은자후원회는 지난 18일 여전도회관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기념관에서

제22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이해경 권사(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를 선출하는 등 제반안건을 토의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히 10:24)'를 주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5년간 회장을 맡아 봉사해왔던 이희주권사가 물러났으며 총무에 손영애권사 등을 임명하는 등 대표회장 및 지역별 공동회장, 신임 임원과 실행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이해경권사는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해 작은자들을 섬기겠다"는 짝막하고 겸손한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결연 후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지연합회 혹은 개교회 여전도회가 1명의 작은자를 후원하는 형식의 결연후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호남작은자의집, 경북작은자의집 같은 지역별 시설들이 위치한 지역의 연합회에서는 후원회가 타 지역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지역별로 작은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지역별 작은자 찾기 및 후원자 찾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집안이 어려워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이른바 '달란트 후원자'를 보다 개발하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피아노, 미술, 미용학원 등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올 한해 동안 1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번 작은자후원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과 지출은 25억4천3백만 원으로 확인돼 2006년의 12억 2천6백여 만 원보다 1백50% 가량 금액이 증가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손우물기

2008년 3월호 · 통권 제178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안중혁

발행일 : 2008년 3월 2일